

위기극복을 통해 믿음과 신뢰 확인

체리부로농가협의회 백승립 회장 & (주)체리부로 노비봉 이사

글 | 정승일 기자(jsid@naver.com)



백승립 회장

2003년은 닭 사육농가나 닭고기 가공업체에게 최악의 해였다. 냉동 닭고기 수입이 급증하면서 닭고기 시세가 생산원가 이하로 떨어졌고, 12월에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해 닭고기 판매량이 90%까지 떨어졌다.

(주)체리부로는 이때 시 여파로 인한 금융권의 대출 회수로 2004년 2월 부도를 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사육농가

들은 자발적으로 회사를 살리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밀린 사육비 등 50여억원에 대해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미루어 받기로 했다.

농가협의회의 이러한 도움과 회사의 노력으로 그해 5월 화의에 들어간 (주)체리부로는 1년 9개월 만인 2006년 2월 화의를 종결했다. 농가들의 도움을 받아 단기간에 회사를 정상화로 돌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회사 창립 때부터 농가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꾸준히 신뢰를 쌓아온 김인식 회장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 후 (주)체리부로와 농가협의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5년 동안 상호 발전해왔으며 서로를 믿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서로에게 두터운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는 체리부로농가협의회 백승립 회장과 (주)체리부로 사육본부 노비봉 이사를 만났다.



노비봉 이사

Q 체리부로농가협회의 탄생 배경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A 백승립 회장

2003년 12월 국내에서 1차 AI가 발생해 닭고기 소비가 90%까지 떨어져 (주)체리부로는 2004년 2월 금융권의 대출회수로 부도를 내고 법원에 화의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전체 농가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결과 밀린 사육비를 받으려 하면 체리부로는 재개하지 못한다고 판단, 농가채권 50여억원에 대해 회사경영이 정상화 되었을 때 받기로 하고 회사를 돕기로 했습니다.

농가들이 이러한 결론을 낸 이유는 회사 부도가 있기 전부터 김인식 회장이 농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신뢰와 믿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농가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최악의 경우 경영권을 농가에게 넘기겠다는 약속을 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농가와 회사가 힘을 합쳤을 때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지역별로 있던 각 지부를 통합해 중앙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체리부로농가협회를 결성해 내부적으로는 결속력 강화 및 상호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대외적으로는 농가이익을 대변하게 된 것입니다.

Q 체리부로농가협회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A 백승립 회장

회사와 농가간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7개 지역의 지부회장이 지역의 농가들과 임시회의를 개최해 농가들의 의견을 모아 지부회장이 참석하는 정기회의를 개최해 수렴된 의견에 대해 안전을 채택해 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회의에서는 농가의 의견에 대해 최대한 존중을 해주면서 타당하지 않은 안전에 대해서는 농가들을 설득하고, 타당한 안전에 대해서는 회사와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농가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기보다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서로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농가와 회사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농가들과 회사가 모두 인정을 하고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4년 회사의 부도위기에서 체리부로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주)체리부로에서는 농가협의회에 어떤 지원과 정책을 펼치고 있나요?

A 노비봉 이사

(주)체리부로와 농가협의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 5년 간 상호 발전을 해왔으며, 특히 회사의 부도로 경영환경이 대내외적으로 악화되었던 2004년 농가협의회는 자발적인 고통분담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데도 사육농가들은 계속해서 닭을 납품해 회사를 살렸습니다. 250여 사육농가들로 구성된 체리부로농가협의회는 지금도 체리부로의 최고 동반자입니다.

이러한 신뢰가 있기에 농가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합니다.

또한 각 지역별 회의가 있을 때마다 지역담당자 외에도 본사 임원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 농가들의 이야기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로 의견이 다른 것들을 수용하고 본사와 농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리부로와 농가협의회는 서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해야만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상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Q (주)체리부로와 농가협의회 간의 견차이가 있을 때 어떤 방법을 통해 해결을 하고 있나요?

A 백승립 회장

농가협의회를 통해 제시된 안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나올 때까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한쪽이 의견을 주장하기 보다는 진솔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가장 좋은 타협점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농가협의회라고 해서 농가들의 입장만을 생각하기 보다는 체리부로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매년 체리부로농가협의회 정기총회를 통해 성적이 우수한 농가에 대한 시상식과 농가들의 생산성 향상과 발전방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A 노비봉 이사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가협의회는 체리부로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협의회에서 올라온 의견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을 때는 문제에 대해 더 생각할 시간을 갖고

추후 다시 회의를 개최해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고 있습니다.

김인식 회장께서도 회사 창립부터 농가들을 회사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생각해 농가들을 위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Q 지금까지 체리부로농가협의회를 운영해 오시면서 가장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A 백승립 회장

2004년 2월 금융권의 대출회수로 부도를 내고 법원에 화의신청을 했을 때 농가들이 고통분담을 통해 회사가 정상화 되도록 함께 노력했을 때입니다.

이때의 믿음과 신뢰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면서 현재는 체리부로농가협의회가 전 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는 것에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Q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생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A 백승립 회장

농가협의회 차원에서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체리부로와 함께 더 많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2009년도 체리부로농가협의회 정기총회

농장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닭고기 산업 전반에 걸쳐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농가를 위한 영역을 넓혀 시설개선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회사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앞으로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회사에서도 시설개선 등의 경영자금을 지원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A 노비봉 이사

체리부로농가협의회는 업계 최초로 결성되어 회사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 육계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가와 더욱 협력해 회사의 정책을 펴나갈 것입니다.

또한 육계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가협회와 함께 소비자들이 원하는 미래가치를 추구해 HACCP 인증, 무항생제축산물 생산 등 새로운 모델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